



#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새로운 시대가 천만민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지난 4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취투를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으로 값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당장 청년들의 영웅적취투를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으로 값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당장 청년들의 영웅적취투를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으로 값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당장 청년들의 영웅적취투를 청년강국이라는 부름으로 값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실하지 못한 청년들은 실사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사회의 우환거리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망쳐먹는 화근으로 된다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고 고상한 미덕을 지닌 청년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진정한 청년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청년들은 그 어느 나라 청년들도 따를수 없는 가장 우수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닌 청년들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골같은 충정,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상한 도덕의리심, 여기에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다. 우리 청년들속에는 타래지 않는 불길속에서도, 쏟아져내리는 산사태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존한 유명무명의 수령결사옹위투사들, 당의 호소를 받들어 나서자란 정든 도시를 떠나 외진 산골과 섬마을로 탄원하여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여나가는 미용선구자들이 수없이 많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자식이 되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처녀어머니》가 되는 우리의 청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자기만큼 알고 돈의 노예로 전락한 자본주의나라 청년들같은 상상조차 할수 없겠는가. 이것은 오직 당과 자기 운명의 기쁨을 이고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것을 청춘의 멋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만이 지닐수 있는 인격이고 미덕이다. 이런 아름다운 기쁨은 이 나라 청년들속에 인생관화되고 보편화되어 여기에 우리의 청년강국의 참모습이 있다.

혁명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내무로부터 외화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적인 그 수법을 알아볼수없이 악랄하고 집요한것이었다. 여기에 서적들의 주되는 과녁은 세 세대 청년들이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청년들을 범죄와 타락의 구렁렁에 몰아넣은 악명높은 부르주아사상의 독소에도 끄떡없이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고수하고 더욱 살려나가고있는것은 혁사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세상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미제의 정치군정압박과 경제적제벌배책들이 걸음마다 물거품이 되는 속내에 미국이 걸었던 마지막기대마저 완전히 흔적바신나고있고도 한결같이 평화이고 있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진군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조국은 청년들의 신봉직업이 핵심적인 역할에 의하여 일떠서고 끝없이 강성변영하는 청년강국이다. 세대를 지향하는 진취성과 정의와 진리에 대한 사랑,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용감성은 청춘의 대명사이다. 이런 훌륭한 품성과 자질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적진보와 발전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혁명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은 비할바없게 높출하다. 당의 평도밀에 혁명투쟁과 새 사회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담당한 선봉대, 수령부대가 되어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여온것이 우리 청년들이었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력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적취투와 불멸의 공적이 별처럼 빛나고있다. 혁명적투쟁력의 주력을 이룬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1950년대 전승의 초복을 올리는데서, 홍포성능을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편전편승의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존상 경쟁운동의 불길높이 새 조국건설에 앞장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대건설시기 당의 부름따라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척지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간 청년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번리와 패취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 변모하고있다.

전세대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요람에서 행보를 누리거나 하는것이 아니라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보내이자는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의 목표이며 지향이다. 선군

시대에 우주를 정복한 민족사적대경사와 최첨단들과의 기적적인 성과들,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체육, 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놀라운 변혁들은 리상과 포부가 원대하고 창조적합이 무궁무진한 우리 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청년강국, 이 부름에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특출한 공적을 이룩한 청년들은 온 세상에 땀땀이 공평하고 내세우려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옹호되어있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의 인제 특히 청년인재들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가 되고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과학기술을 소유한 청년인재들이 수많은 배출됨에 따라 강성국가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우리 조국은 영원히 젊음으로 악동하는 청년강국이다.

청년시절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대교체가 부단히 이루어지기에 청년대대의 특징이다. 력사의 한 시대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훌륭한 청년들의 후비가 역세게 자라나고 하여 자신을 바치것을 청춘의 멋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만이 지닐수 있는 인격이고 미덕이다. 이런 아름다운 기쁨은 이 나라 청년들속에 인생관화되고 보편화되어 여기에 우리의 청년강국의 참모습이 있다.

혁명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내무로부터 외화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적인 그 수법을 알아볼수없이 악랄하고 집요한것이었다. 여기에 서적들의 주되는 과녁은 세 세대 청년들이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청년들을 범죄와 타락의 구렁렁에 몰아넣은 악명높은 부르주아사상의 독소에도 끄떡없이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고수하고 더욱 살려나가고있는것은 혁사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세상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미제의 정치군정압박과 경제적제벌배책들이 걸음마다 물거품이 되는 속내에 미국이 걸었던 마지막기대마저 완전히 흔적바신나고있고도 한결같이 평화이고 있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진군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조국은 청년들의 신봉직업이 핵심적인 역할에 의하여 일떠서고 끝없이 강성변영하는 청년강국이다. 세대를 지향하는 진취성과 정의와 진리에 대한 사랑,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용감성은 청춘의 대명사이다. 이런 훌륭한 품성과 자질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적진보와 발전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혁명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은 비할바없게 높출하다. 당의 평도밀에 혁명투쟁과 새 사회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담당한 선봉대, 수령부대가 되어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여온것이 우리 청년들이었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력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적취투와 불멸의 공적이 별처럼 빛나고있다. 혁명적투쟁력의 주력을 이룬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1950년대 전승의 초복을 올리는데서, 홍포성능을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편전편승의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존상 경쟁운동의 불길높이 새 조국건설에 앞장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대건설시기 당의 부름따라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척지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간 청년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번리와 패취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 변모하고있다.

전세대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요람에서 행보를 누리거나 하는것이 아니라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보내이자는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의 목표이며 지향이다. 선군

시대에 우주를 정복한 민족사적대경사와 최첨단들과의 기적적인 성과들,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체육, 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놀라운 변혁들은 리상과 포부가 원대하고 창조적합이 무궁무진한 우리 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청년강국, 이 부름에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특출한 공적을 이룩한 청년들은 온 세상에 땀땀이 공평하고 내세우려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옹호되어있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의 인제 특히 청년인재들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가 되고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과학기술을 소유한 청년인재들이 수많은 배출됨에 따라 강성국가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우리 조국은 영원히 젊음으로 악동하는 청년강국이다.

청년시절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대교체가 부단히 이루어지기에 청년대대의 특징이다. 력사의 한 시대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훌륭한 청년들의 후비가 역세게 자라나고 하여 자신을 바치것을 청춘의 멋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만이 지닐수 있는 인격이고 미덕이다. 이런 아름다운 기쁨은 이 나라 청년들속에 인생관화되고 보편화되어 여기에 우리의 청년강국의 참모습이 있다.

혁명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내무로부터 외화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적인 그 수법을 알아볼수없이 악랄하고 집요한것이었다. 여기에 서적들의 주되는 과녁은 세 세대 청년들이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청년들을 범죄와 타락의 구렁렁에 몰아넣은 악명높은 부르주아사상의 독소에도 끄떡없이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고수하고 더욱 살려나가고있는것은 혁사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세상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미제의 정치군정압박과 경제적제벌배책들이 걸음마다 물거품이 되는 속내에 미국이 걸었던 마지막기대마저 완전히 흔적바신나고있고도 한결같이 평화이고 있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진군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조국은 청년들의 신봉직업이 핵심적인 역할에 의하여 일떠서고 끝없이 강성변영하는 청년강국이다. 세대를 지향하는 진취성과 정의와 진리에 대한 사랑,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용감성은 청춘의 대명사이다. 이런 훌륭한 품성과 자질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적진보와 발전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혁명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은 비할바없게 높출하다. 당의 평도밀에 혁명투쟁과 새 사회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담당한 선봉대, 수령부대가 되어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여온것이 우리 청년들이었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력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적취투와 불멸의 공적이 별처럼 빛나고있다. 혁명적투쟁력의 주력을 이룬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1950년대 전승의 초복을 올리는데서, 홍포성능을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편전편승의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존상 경쟁운동의 불길높이 새 조국건설에 앞장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대건설시기 당의 부름따라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척지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간 청년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번리와 패취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 변모하고있다.

전세대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요람에서 행보를 누리거나 하는것이 아니라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보내이자는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의 목표이며 지향이다. 선군

시대에 우주를 정복한 민족사적대경사와 최첨단들과의 기적적인 성과들,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체육, 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놀라운 변혁들은 리상과 포부가 원대하고 창조적합이 무궁무진한 우리 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청년강국, 이 부름에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특출한 공적을 이룩한 청년들은 온 세상에 땀땀이 공평하고 내세우려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옹호되어있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의 인제 특히 청년인재들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가 되고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과학기술을 소유한 청년인재들이 수많은 배출됨에 따라 강성국가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우리 조국은 영원히 젊음으로 악동하는 청년강국이다.

청년시절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대교체가 부단히 이루어지기에 청년대대의 특징이다. 력사의 한 시대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훌륭한 청년들의 후비가 역세게 자라나고 하여 자신을 바치것을 청춘의 멋으로, 보람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만이 지닐수 있는 인격이고 미덕이다. 이런 아름다운 기쁨은 이 나라 청년들속에 인생관화되고 보편화되어 여기에 우리의 청년강국의 참모습이 있다.

당히 훌륭한 청년대군을 키우고 존엄높은 청년강국을 일떠세운다. 이것은 세계사회의 운동사와 우리 조국의 현실이 가르쳐주는 력리이다.

수령의 위대한 령도품모든은 사회에 청춘의 폐기와 열정이 차려지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평생 백두산선군장군의 왕성한 정력으로 우리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는 청춘의 활력으로 힘있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가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시대이다.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리며 청년강국의 기상과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는 힘은 창조력으로 인민의 더없는 행운이며 영광이다.

우리 조국의 70년 력사는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백두산선군대위인들의 령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쳐온 력사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었다으며 한평생 청년들의 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시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강국건설을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새 기원이 열리고 가장 숭바른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생애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청년운동을 혁명하게 이끄시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혁명적인 교양에 의하여 수많은 세대와 열혈청년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골간으로 자라나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단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전위적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선군청년전위대의 대부대를 키우신 질서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는 나날에 청년들을 주체혁의 선군청년전위로 혁명적으로 키워오시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의 전위대 청년동맹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병동대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얻어주시고 선군전위와 청년중시정신을 결합시켜 빛나게 구현해오신 위대한 선군명장의 품속에서 50년대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당히 훌륭한 청년대군을 키우고 존엄높은 청년강국을 일떠세운다. 이것은 세계사회의 운동사와 우리 조국의 현실이 가르쳐주는 력리이다.

수령의 위대한 령도품모든은 사회에 청춘의 폐기와 열정이 차려지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평생 백두산선군장군의 왕성한 정력으로 우리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는 청춘의 활력으로 힘있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가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시대이다.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리며 청년강국의 기상과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는 힘은 창조력으로 인민의 더없는 행운이며 영광이다.

우리 조국의 70년 력사는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백두산선군대위인들의 령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쳐온 력사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었다으며 한평생 청년들의 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시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강국건설을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새 기원이 열리고 가장 숭바른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생애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청년운동을 혁명하게 이끄시어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혁명적인 교양에 의하여 수많은 세대와 열혈청년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골간으로 자라나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단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전위적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선군청년전위대의 대부대를 키우신 질서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는 나날에 청년들을 주체혁의 선군청년전위로 혁명적으로 키워오시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의 전위대 청년동맹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병동대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얻어주시고 선군전위와 청년중시정신을 결합시켜 빛나게 구현해오신 위대한 선군명장의 품속에서 50년대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에하는 위대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청년강국건설업적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민적보로 여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 이속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위수님들이 새 세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참모습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 건결한 애국청년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청년강국건설문제와 가지는 판단적의를 통찰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목표를 하나인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실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선군조선의 청년미제를 꽃피운 민족사적업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물려받은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루어주시는 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선군시대 청년들의 품모에 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은 나라 각계층 청년들의 투쟁기공과 생활기공에서는 굳건정신, 굳건기질, 굳건본매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수령의 유혹관철전, 당정책옹위전도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정신으로 벌러나가고 무수 일을 하나 하여도 인민군인들의 일당백배격속도로 단숨에 해제하고 노대를 버리며 혁명적이며 고상한 노대를 즐겨 부르고 선군시대 청년의 멋이 나게 생활하고있는것이 우리 청년들이다. 현실은 선군의 원칙에서 청년본문해제의 시대적격감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대해주고있다.

수령 휘하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로 수놓아지고있다.

당의 사랑과 믿음은 청년강국건설의 생명선이며 청년들의 값있는 삶의 자랑분야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중대사를 론하시고 하나의 정책을 내놓으실 때에도 청년들의 지향과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의 리상과 포부를 꽃피울수 있게 하시었다. 결사위인들의 승고한 사랑과 믿음은 《미레를 사랑하라!》,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에도 어려웠고 김일성동지후추의혁명명령에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는 혁명의 해방봉에도 뜨겁게 깰들어있다. 대규모발전소와 도로건설, 철길공사와 같은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중요직업이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의 본진임무에 맞게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도록 한데도 깰들어있으며 모든 당조직들이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분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의 사상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쏟도록 한데도 어려웠다.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진 오늘 우리 당은 청년들을 고상한 사상정신을 지닌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보다 큰 힘을 쏟고있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최후승리가 눈앞에 다가올수록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도수는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는것이 경에하는 위수님의 승고한 의도이다. 당의 령도밑에 위대성교육,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세계교양, 도덕교양이 심화되고 백두산의 칼바람을 아는 열혈의 선군청년전위들의 대부대가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혁명적인 노래포성과 거세한 혁명운동은 청년들에게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우주고 혁명적정당과 집단의 힘을 키우려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를 꽃피우기 위한 혁명적이며 혁명적정당의 발원이다.

청년들을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이끄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 당의 위대한 손길아래서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계승자들로,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자랑떨쳐나간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의 력사는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청년들을 불굴의 혁명투사,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온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혁명실현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대명사, 활판의 청년투사로 키우기 위한 훌륭한 확고이다. 선군혁명은 력사에 기록된 혁명투쟁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며 만민적봉을 뚫고나아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치렬한 반세계교양투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치렬한 반세계교양투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치렬한 반세계교양투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의 력사는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청년들을 불굴의 혁명투사,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온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혁명실현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대명사, 활판의 청년투사로 키우기 위한 훌륭한 확고이다. 선군혁명은 력사에 기록된 혁명투쟁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며 만민적봉을 뚫고나아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치렬한 반세계교양투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치렬한 반세계교양투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의 력사는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청년들을 불굴의 혁명투사,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온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혁명실현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대명사, 활판의 청년투사로 키우기 위한 훌륭한 확고이다. 선군혁명은 력사에 기록된 혁명투쟁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며 만민적봉을 뚫고나아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치렬한 반세계교양투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치렬한 반세계교양투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의 력사는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청년들을 불굴의 혁명투사,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온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혁명실현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대명사, 활판의 청년투사로 키우기 위한 훌륭한 확고이다. 선군혁명은 력사에 기록된 혁명투쟁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며 만민적봉을 뚫고나아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치렬한 반세계교양투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치렬한 반세계교양투쟁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의 력사는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청년들을 불굴의 혁명투사,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온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혁명실현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대명사, 활판의 청년투사로 키우기 위한 훌륭한 확고이다. 선군혁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불후의 고전적로작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2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도표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2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6일 도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백이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한동성 선전문화국장, 중앙단체, 사업계 일꾼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원들,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약결을 밝힌 불멸의 대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총련이기는 자는 의의와 결성후 총련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제 84(1995)년 5월 24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

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 주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서한 의 기본사상은 총련 일꾼들과 재일 동포들이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의 해외교포운동방향이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며 총련을 영원히 주석님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서 서한을 보내 주신것은 재일조선인운동사에 또 하나의 력사적사건이었다고

적화하였다.

력사적서한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지난 20년간의 총련사업과정에 힘있게 확대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는 결정적담보는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며 그 기본방도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그이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총련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 깊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서 가르치신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대강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남조선인터넷신문 《동양뉴스》에 의하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돐과 조국 해방 70돐에 즈음하여 7일 일 본 오사카와 교베에서 재일동포들의 《통일마당》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노조선조급학교,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비롯한 재일조선학교 학생들과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장에는

《6.15공동선언 열렬 지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발언자들은 우리 민족이 안고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녀성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남조선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사가 소개되었다. 남조선단체들은 연대사에서 일본정부의 군국주의부활책동과 악랄한 재일동포 탄압속에서도 일본지역동포

들이 평화와 통일의지를 담은 《통일마당》행사를 22번째로 가진데 대해 언급하고 이를 통해 일본과 동포사회에서 연대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져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일본땅에서도 조선민족의 전통과 넋을 간직하고 사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온 거머가 굳게 움켜쥐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을 향해 나아가길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 재일 동포들 통일행사 진행

《6.15공동선언 열렬 지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발언자들은 우리 민족이 안고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 국제사회계의 런대성의 목소리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열의 고통을 끝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국제사회계가 적극 지지하고있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율푸랄랑가주위원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45년 9월 8일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조선민족의 분열의 력사, 치욕의 력사가 시작되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인민의 자주적발전을 대한 지향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용납 못할 행위이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면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적행위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한다.

세계가 조선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인다.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노동자당 대표는 신문 《디알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통일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선인민은 외세의 간섭이 없

이 민족자재의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보적인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인도네시아의 머르데카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북남 최고수뇌부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어진 조선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합의하였다.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비극은 결코 벗어날수 없는 속명으로 될수 없으며 량심과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지구상 어디에 있던 수반방할수 없는 가슴어린 상처로 되고있다.

더이상 참을수도 용인할수도 없는 조선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는것은 전체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인민들 모두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의무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성원하는 투쟁은 지구상에 침략과 전쟁이 없으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적 영결된 것들을 바라는 전세계 진보적인인류의 념원을 실현하는 결과 잇당하였다.

통일적, 반민족적행위를 일삼고있다.

공통선언에 대한 부정적 대결과 전쟁만을 초래할것이다.

박근혜당은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할것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민족뿐 아니라 인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는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비극은 결코 벗어날수 없는 속명으로 될수 없으며 량심과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지구상 어디에 있던 수반방할수 없는 가슴어린 상처로 되고있다.

더이상 참을수도 용인할수도 없는 조선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는것은 전체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인민들 모두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의무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성원하는 투쟁은 지구상에 침략과 전쟁이 없으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적 영결된 것들을 바라는 전세계 진보적인인류의 념원을 실현하는 결과 잇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 《안명높은 《5.24조치》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힌다》를 5월 24일과 2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라이 노보스뜨루진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공동조사에 동의할것을 촉구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에서 《만약 《천안》호침몰사건이 우리 소행이라고 단정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은 민족앞에서, 세계앞

에서 내놓고 공적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의 요구에 응해나셔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대구기 동동장 난 《천안》호의 선체를 땅속에 묻어다 놓는것만큼 진상조사는 한결 더 수월할것이라고 하면서 《천안》호침몰사건의 공동조사에 동의할것을 조선국방위원회의 강력한 결의단은 지금도 존재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따스로운, 신문 《아르구멘트 이 락피》, 인터넷TV 《미르 24》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다음과 같

이 전하였다.

조선이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에서 《5.24조치》는 남조선 《천안호침몰사건을 등 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5.24조치》를 정치적적으로 산물로 판인하고 남조선은 《선 대화, 후 제재》라는 잠포대결을 너뜨려를 췌쳐대는것으로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의 요지를 보도하였다.

## 브라질조선친선협회결성 기념 모임 진행

브라질조선친선협회결성 20돐 기념모임이 5월 28일 국제민주녀성연맹청사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브라질조선친선협회, 브라질주제사상연구센터, 국제민주녀성연맹의 인사들과 군

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초대되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브라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카를로스 엔리케 베에리라는

협회가 지난 20년간 브라질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 박근혜 《정권》 퇴진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5월 29일 온 거머가 굳게 단결하여 괴뢰당당을 심판하고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국 해방 70돐,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온 거머가 굳은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은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야 하는 시대적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통일《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력대 어느 《정부》보다 더욱더 악랄하게 반공화국도략책동을 일삼고 국민을 죽음에 몰아가는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적인 집단이라고 단죄하였다.

지금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을 념원하고 참다운 삶을 요구하는 애국민중의 요구를 《보안법》을 휘둘러 목살

하고 인간쓰레기들을 주위에 깔아들이 《유신》폭정을 통가하는 악정을 실시하려고 발악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정부》를 그대로 두고 사는 민족의 삶은 물론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통일을 이룰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우리모두가 단결하여 박근혜《정부》의 악정을 심판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통일없이 민족의 장래도 없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서방의 부당한 요구를 규탄하는 이란인민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가물피해가 심각해지고있다. 브라질에서 1930년이래 최악의 가물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고있다.

정부는 급격한 기온상승과 수개월동안 지속된 가물로 현재 여러 주들에서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이 중단되는 등 물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저수지들의 물량이 줄어들어 공업과 농업, 수력발전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것으로 예견하고있다.

이런에서 가물에 의한 피해로 주민들이 생활상어려움을 겪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가물로 먹는물 부족현상이 초래되고있다. 약 60%의 저수지들이 말라버리며 가장 큰 난문제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내주지 못하고있는것이라고 한다.

마다가스카르의 남부지역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된 가물로 농생업이 크게 줄어들어 심각한 기아위기가 조성되었

다고 한다. 특히 2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발육에 지장을 받고있다고 한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무더위를 비롯한 이상기후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있다. 이로 하여 경제전반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세계경로 4조 US\$이상의 손실을 보고있으며 이것은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격지 않은 나라와 지역들에 가물과 무더기, 태풍과 전염병발생 등으로 여러가지 재난이 닥쳐올수 있다고 보고있다.

유엔은 해마다 가물과 토지황폐화로 수많은 농경지가 없어지고있으며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밝혔다.

가물피해상황이 심각해졌으므로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그 후속과를 강력 줄이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있으며 피

미국근로자들의 불우한 처지

미국에서 근로자들의 처지가 날로 악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밝힌데 의하면 살림집가격이 너무 비싼데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들은 단칸짜리 집마저 세배 업두도 내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한해 미국이 많은 가정들이 수입의 절반이상을 집세를 무는 데 쓰고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녀성문제 해결의 중요성 강조

아프리카개발 상임대표위원회 위원장이 7일 녀성문제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대륙에서 녀성들이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특히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75%가 녀성들이라고 밝혔다.

한해 미국이 많은 가정들이 수입의 절반이상을 집세를 무는 데 쓰고있다.

경제적발전과 진보를 이룩하는 데서 절실한 문제로 되고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날수송량 증대

이란에서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전도의 첫 2개월동안에 이 나라를 경유하여 수송된 화물량이 지난 이란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대되었다. 7일 이 나라의 한 신문이 밝혔다.

레오반대투쟁

케냐에서 테로반대투쟁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이 나라 경찰은 가리사에서 테로분자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여 3명을 체포하고 무기과 탄약들을 압수하였다.

마약소탕작전

탄지니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마약소탕작전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12.4의 마라후아나가 압수되고 156(에이커)의 카나비스채배지가 제거되었다. 6일 이 나라 경찰이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공모결탁하여 범죄적인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7일 일본방위성은 일미가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해상배비형유격미사일 《SM-3 블로크 2A》의 첫 시험발사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교외에 있는 사격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미사일방위분야에서 공모결탁 강화

《SM-3 블로크 2A》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되어있는 《SM-3 블로크 1A》의 개량형으로서 200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경에 그 개발을 마치고 몇년여간 해상자위대에 배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가물피해가 심각해지고있다. 브라질에서 1930년이래 최악의 가물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고있다.

다고 한다. 특히 2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발육에 지장을 받고있다고 한다.

미국근로자들의 불우한 처지

미국에서 근로자들의 처지가 날로 악화되고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녀성문제 해결의 중요성 강조

아프리카개발 상임대표위원회 위원장이 7일 녀성문제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경제적발전과 진보를 이룩하는 데서 절실한 문제로 되고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공모결탁하여 범죄적인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미사일방위분야에서 공모결탁 강화

《SM-3 블로크 2A》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되어있는 《SM-3 블로크 1A》의 개량형으로서 200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중앙통신》